

안중연과  
박범신의  
만남

2010.2.3\_28

설 연휴 2.13\_15 휴관

ahn, jong-yuen

groove  
of  
time

시간의 주름

주최  KYOBO 대산문화재단  Hakgojae  
Gallery

기획 사단법인 문학사랑 학교재

후원  KYOBO 교보문고

## 전시개요

제목: 안중연, 시간의 주름 groove of time-안중연과 박범신의 만남

기간: 2010년 2월 3일 - 2월 28일 (설 연휴 2/13-15휴관)

장소: 학교재 전관

출품작: 안중연의 설치 및 영상 60여 점, 본관-에폭시와 스테인리스 미러, 나무 등을 이용한 평면작업, 신관-설치 및 영상작업

주최: 대산문화재단, 학교재

기획: 사단법인 문학사랑, 학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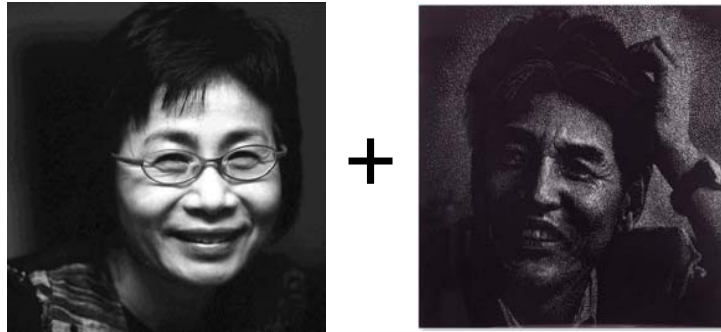
후원: 교보문고

## 전시컨셉

- 미술인 안중연과 문학인 박범신의 만남
- 생멸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 헌사 - 시간의 주름
- 검은 보라빛 바다의 중심, 그 소멸과 생성의 공간
- 주름을 지우는 시대에 울리는 경중
- 노동으로 공간을 짓는 수행자

## 전시소개

학교재는 2010년을 여는 첫 전시로 '시간의 주름 groove of time展'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사단법인 문학사랑과 대산문화재단이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해온 '문학과 미술의 만남' 그 20번째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이를 잊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는 두 작가 박범신과 안중연이 만났다. 안중연은 박범신의 소설 『주름』, 『고산자』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 문학언어를 평면과 입체, 그리고 영상과 설치에 이르는 시각언어로 형상화한 작품 60여 점을 학교재 본관과 신관에서 선보인다.



## 미술인 안종연과 문학인 박범신의 만남

*“내가 쌀을 주었으니 당신이 그것으로 떡을 만들든 밥을 짓든 하시오.”*

3년 전 사단법인 문학사랑과 대산문화재단은 2010년 ‘문학과 미술의 만남전’을 위한 문학가로 중후하고 선이 굵은 문체와 그림을 그리는 듯한 뛰어난 묘사력으로 섬세한 감성을 표현하는 박범신을 선정했다. 박범신의 소설은 독자들의 공감각적 감수성과 교감하는데 뛰어나 타 장르 예술가에게도 풍부한 상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최측은 박범신의 소설을 시각언어로 풀어낼 작가로 미술인 안종연을 선정했다. 안종연은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문학작품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상으로 메시지를 시각화하고 의미를 확장시키는 작업방식이 가능한 작가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비롯하여 시간과 우주에 대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두 작가는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쌓아가며 이번 전시를 만들었다.

박범신은 전시에 앞서 안종연에게 “내가 쌀을 주었으니 당신이 그것으로 떡을 만들든 밥을 짓든 하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설에 대한 해석과 상상의 자율성을 안종연에게 주었다. 안종연은 박범신이 소설 가운데 건져 올린 화두를 자신의 시각언어와 결합해 안종연만의 서사를 펼쳤다. 안종연 작업은 소설가와 화가의 만남이 일반적으로 보여주었던 문학서사와 시각서사의 ‘단선적인 만남’을 넘어 ‘심층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안종연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문학적 서술 자체를 시각화하기 보다는 주제의식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미니멀한 평면과 입체, 그리고 영상과 설치에 이르기까지 예술언어 전 영역을 두루 오가며 문학서사를 시청각언어로 재해석하였다.

작품의 제목은 두 작가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했는데, 이는 박범신 소설의 목차와 같다. 작가가 배치한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박범신 소설 속 장면들을 여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의 만남은 새로운 예술생산을 매개하며, 나아가 탈장르 소통이라는 문화생산을 견인한다.

## 생멸하는 모든 존재를 향한 헌사 - 시간의 주름

*“나는 시간의 주름살이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감금해 가는지 진술했고, 그것에 속절없이 훼손당하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다 처형된 한 존재의 내면풍경을 가차없이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박범신 작가의 말 中*

박범신은 『주름』을 통해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 소멸하는 존재들에게 헌사를 바쳤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숙명을 통해서 나온 ‘시간의 주름에 관한 기록’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인간 존재에 관한 방대한 저작 속에 담긴 시간성의 문제는 시각예술가 안종연 또한 늘 고민하고 있던 화두였다. 안종연은 전시에 앞서 그 제목을 ‘wrinkle of time’ 아닌 ‘groove of time’으로 정했다. 주름을 직역한다면 ‘wrinkle’(주름)이지만 ‘groove’(홈)를 사 용함으로써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시간의 깊이까지 표현하고자 했다. 그리고 박범신이 문장으로 써 내려간 생멸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바친 ‘시간의 주름’을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두 작가가 성찰한 ‘시간의 주름’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공감각적 명상의 자리가 될 것이다.

## 검은 보라빛 바다의 중심, 그 소멸과 생성의 공간

*“과실 속에 씨가 있듯이, 태어날 때 우리는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씨앗을 우리들 육체의 심지에 박고 태어난다. 생성과 소멸은 경계 없는 동속자이다. 우리가 청춘으로 불릴 때조차 푸르른 생성의 그늘 속에서 사멸의 씨앗이 은밀히 자라는 걸 멈추지 않는다. 다섯 살짜리 아이에겐 다섯 살의, 스무 살짜리 청년에겐 스무 살의, 일흔 살 노인에게겐 일흔 살의 생성과 소멸이 함께 깃들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지향하는 사랑의 운명이 그러하듯이.” 『주름』 中*

『주름』에서 ‘검은 보라빛’은 남자 주인공을 매혹하는 신비롭지만 치명적인 여성을 상징한다. 헤어날 수 없는 검은 보라빛에 매료된 남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빛을 따라 유랑을 시작한다. 죽음을 상징하는 보라빛에 매료되었다는 것이 암시하듯 결국 남자는 죽음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결국 생성과 소멸은 함께 한다. 안종연은 『주름』을 비롯하여 박범신의 소설에서 품고 있는 이미지 보라빛에서 영감을 받아 전체적인 작품톤을 만들어나갔다. 그 가운데 작품 〈검은 보라빛 바다의 중심〉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바다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처럼, 때로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처럼 보라빛 공간을 펼쳐 보인다.

## 주름을 지우는 시대에 울리는 경종: 오늘을 살아가는 50대들의 이야기

『주름』은 겉으로 보면 50대 남성이 경험한 ‘극한’의 사랑이야기다. 하지만 가정과 사회를 위해 포기한 ‘등 위에서 유행처럼 서 있는 나의 옛 꿈’을 한 두 가지씩 품고 있는 50대 가장이 자신의 오랜 꿈 하나를 다시 회수하고자 고군분투 하는 내용이 담긴, 20세기말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슬픈 모더니티에 대한 소설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꿈을 되찾기 위해 처음에는 한 여자를 좇아 일상을 송두리째 버렸고 종래엔 성(性)과 사랑, 죽음과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좇아 계속되는 유랑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 자유와 유랑의 끝에는 ‘텅 빈 중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요즘은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시대이다. 나이들에 따라 생기는 지혜와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마저 흉이 되어 지운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50대의 남자는 하루 하루가 무기력하고 허무하다. 『주름』의 주인공도 매일매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대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무난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을 과감히 버리고 유랑을 떠난다. 60대의 박범신 작가가 만든 평범한 50대 남자의 도발적 선택에 대한 50대 남자 이야기를 50대 여성작가인 안종연이 풀어냈다. 내면의 위숙미는 무시한 채 외모만을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 50대 60대 두 작가의 ‘시간의 주름’을 성찰하는 전시는 성(性)을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에 녹아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 노동으로 성찰의 공간을 짓는 수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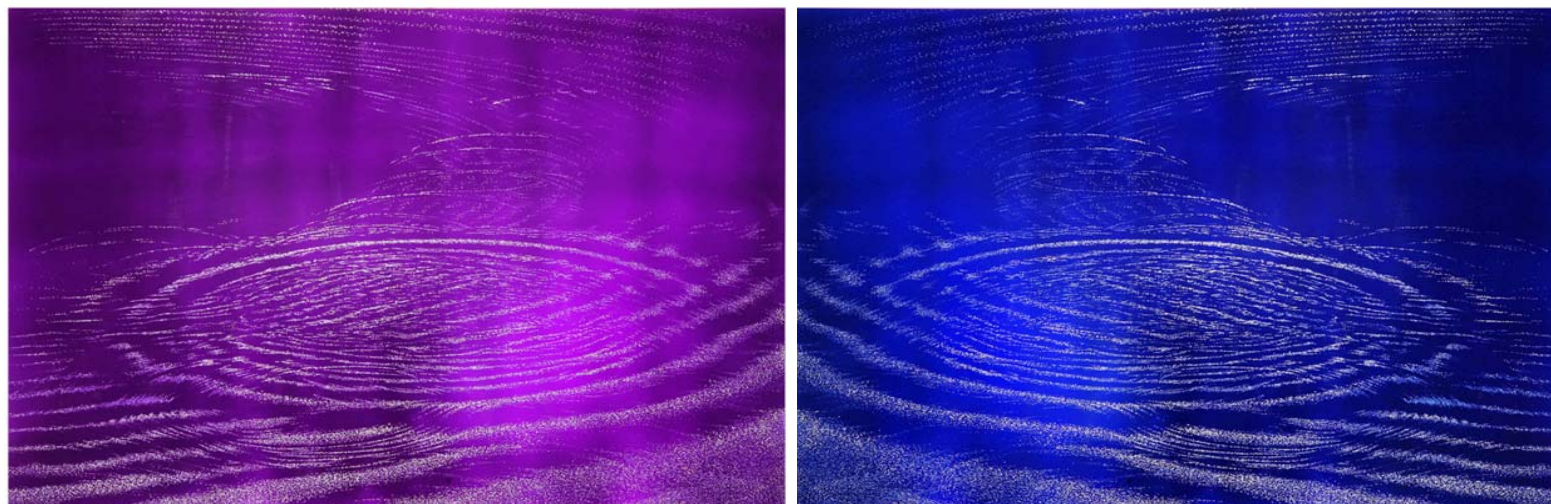
안종연은 캔버스를 비롯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두랄루민, 유리, 돌 등 무겁고 다루기 까다로운 재료들까지 두루 작품의 재료로 섭렵한다. 그는 요리사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재료를 고르듯 작품을 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 재료를 고른다. 하지만 알맞은 재료의 선택만으로 작가가 원하는 결과물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재료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건인데 안종연은 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느낌을 뽑아내는데 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해, 손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안종연의 작품은 대부분 흑독하리만치 많은 노동력과 긴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에 점을 찍어 만든 작품은 모교 교수들로부터 “Insane!” 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완성했다. 드릴로 스테인레스 스틸에 수천 수만 번의 점을 찍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작업에 손목이 성치 않지만 한 점 한 점 찍어 완성한 작품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안종연만의 그림이 된다. 오랜 시간 한 점 한 점 찍어 내리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인내심은 마치 수행자의 자세와도 같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새롭게 만난 재료인 에폭시를 이용한 작업은 맨 아래층의 밑그림과 표면 사이에 상당히 두꺼운 층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두꺼운 마티에르가 아닌, 밑그림을 그리고 에폭시를 붓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에폭시를 붓고 하는 모든 작업과정을 켜켜이 담은 시간의 흔적이다. 에폭시는 기온과 환경에 예민한 재료가 때문에 같은 중량으로 같은 환경에서 사용하더라도 그때그때 발색이 달라져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처럼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안종연은 제대로 작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여 작업한다.

이 밖에도 스테인레스 스틸, 유리구슬을 이용한 작업 모두 대단한 노동력과 시간의 결과물 들이다. 새로운 재료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가는 다양한 매체 위에 긴 시간 끈질긴 노동의 손길로 ‘시간의 주름’을 다채롭게 형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 빛의 에젠

"산, 숲, 강, 호수, 해, 달, 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제각기 에젠(ezen)이라고 불리는 영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운명이 이 에젠의 지배를 받아요. 에젠의 이끌림을 잘못 받으면 죽음과 파멸뿐이지요." 『주름』 中



빛의 에젠, 2009, Pecking on color baked stainless steel , 80 x 120 cm

〈빛의 에젠〉연작은 컬러 스테인리스 스틸 판재를 전동 드릴로 쪼아서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다시 열처리 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안종연 특유의 기법이 돋보이는 작업으로, 물결의 파동이나 풍경 등을 통해서 빛의 확산을 시각화한 작품들이다. 오랜 시간 한 점 한 점 찍어 내리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작품은 수행자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부랴트인들은 산, 숲, 강, 호수, 해, 달, 별 등 모든 자연에 영(靈)이 있고, 사람에게도 제각기 영(靈)이 있다고 믿는다. 안종연은 이 작업을 통해 모든 자연에 깃든 '영혼'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안종연 자신과 이 프로젝트의 동반자인 박범신 두 인물을 새긴 초상 작업을 비롯하여 9점의 스테인레스 스틸 작업을 선보인다.

## 새날들의 시작

“그녀와 동행하여 멀리 동해안을 돌아온 그 짧은 시간에 나 자신이 어떤 내부적 변화를 겪었는지 모조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게는 그날부터 새로운 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생을 향해 지각한 자가 그렇듯 환호작약 질주해 들어갔고, 그 끝을 염려하진 않았다.” 『주름』 中



주름-새날들의 시작, 2009, Colored solid epoxy on acrylic , 41 x 53.5 cm

〈새날들의 시작〉은 에폭시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 연작들은 색깔과 모양도 다양한데 꽃잎 같기도 하고 알 같기도 하며 생명체의 원형질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소설에서 김진영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에 부푼 것처럼 이 연작들은 환희에 가득 찬 에너지를 응축시켰다가 폭발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은 에폭시와 맑은 안료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평면 위에 에폭시를 붓고 그 위에 색을 얹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간의 썩을 쌓는 수행성을 동반한다. 시간을 썩을 쌓는 것은 작가의 몫이지만 작품의 이미지는 우연의 효과가 결정한다.

## 바이칼의 에젠

*“바이칼로 가겠어. 그녀는 미리 정해두었다는 듯이 명쾌하게 말했다. 바이칼엔 뭐가 있습니까...라고 나는 곧 반문했고, 바이칼엔 호수가 있지...라고 그녀는 받았다.”*

*“나의 유랑이 끝난 곳은 바이칼이었다. 그녀가 영원히 눈 감은” 『주름』中*



바이칼의 에젠, 2009, Mixed media on canvas , 145 x 290 cm

바이칼 호수는 지구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이다. 타타르어 '바이쿨'에서 유래한 이름은 풍요로운 호수라는 뜻이다. 소설 『주름』에 등장하는 바이칼 호수는 천예린이 숨을 거두는 장소이자 김진영의 유랑이 끝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들은 결국 바이칼에 가기 위해 그 긴 유랑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끝을 맺었다.

차가운 호수 표면의 빙판이 느껴지는 이 작품에는 맨 아래층의 밀그림과 표면 사이에 상당히 두꺼운 층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두꺼운 마티에르가 아니다. 밀그림을 그리고 에폭시를 붓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리고 에폭시를 붓는 모든 작업과정의 축적물, 즉 시간의 흔적이다.

안종연은 바이칼의 깨끗한 빙판을 표현하기 위해 에폭시라는 소재를 선택하였고 스왈로브스키 가루로 반짝임을 더했다. 자연에서 소설로, 소설에서 또다시 화폭으로 옮겨진 바이칼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고 깊은 청량한 호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



## 빈 중심

“평생의 모든 삶을 바쳐 소유한 전부를 버리고 나서, 멀고 먼 유랑의 끝에 비로소 얻었다고 믿었던 자유, 아니 믿고 싶었던 그 자유의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걸 나는 너무도 또렷이 본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어둡고 차가운, 동시에 깊고 부드러운, 꺼진 자궁 같은, 침묵의 집일 뿐이었다.” 『주름』中



빈 중심, 2009, 3 Dimensional steel, 1250 x 1650 x 600(D) cm

김진영이 좇았던 자유와 유랑은 그 중심이 텅 비어있었다. 결국 그는 허깨비를 쫓아 파멸을 마다 않고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선택한 것이다. <빈 중심>은 그 허망한 진실을 철판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지름이 다양한 여러 개의 타원을 격자로 겹쳐서 속이 빈 입체의 타원을 만들었다. 홀연히 지나간 듯 철판에 그 흔적만 남긴 사람의 실루엣은 ‘텅 빈 중심’처럼 그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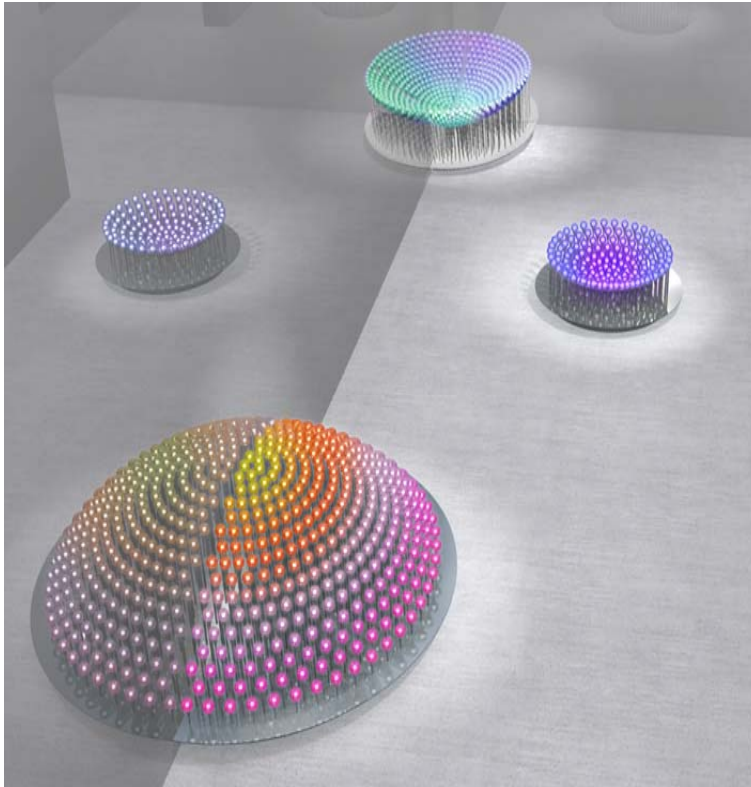
## 만화경

“나는 박범신 선생님 소설에서 ‘생성과 소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또한 매 순간 떠나 보내는 것처럼, 힘겨운 순간이 지나가면 즐거운 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매 순간 순간이 생성되면서 소멸하고 소멸하면서 생성됩니다. 한 순간도 같은 적은 없어요. 바로 이 만화경처럼” 『안종연』



안종연은 이 만화경 작품이 '시간의 주름'이라는 전시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은 <새날들의 연작>에서 얻은 이미지들을 다양한 화면으로 변주한 애니메이션을 거울 설치 조명과 함께 연동함으로써, 확장하는 공간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시간과 공간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한다.

## 빛의 에젠



회화와 더불어 철재, 목재, 사진, 영상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는 안종연의 예술은 조명으로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안종연이 빛 작업을 시작한지 꼭 10년이 된다. 안종연은 빛과 함께 유리 구슬, 거울 등 통해 전시장 바닥과 벽과 천정에 환상적인 '빛 드로잉'을 선사한다. 빛을 이용한 안종연의 공간설치는 우주의 공간 속에서 시간성의 원형을 체험하게 하는 방대한 스케일의 시각 서사를 구축한다. 안종연의 시각 서사가 마침내 웅장한 장면과 상황으로 전개되는 곳이 바로 이 빛 공간이다. <빛의 에젠>연작은 유리구슬을 통과한 빛들이 펼치는 꿈결같은 세계를 보여준다. 이 빛 공간이 바로 안종연이 추구하는 시간과 공간, 생성과 소멸의 문제가 하나의 화두로 집약하는 장소이다.

## 고산자

“이제 바람이....가는 길을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길을 내 몸 안에 지도로 새겨 넣을까 하이.” 『고산자』中



고산자 , 2009, Painted on curved burnt wood , 60 x 80 cm



고산자-바람길 , 2009, Painted on curved burnt wood , 40 x 80 cm

박범신의 소설 『고산자』는 조선시대 가장 정확한 실측 지도로 평가받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도와 전국 지리지를 편찬한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를 담은 작품이다. 안중연은 『고산자』를 읽고 나이테가 있는 나무에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뒤, 마음에 꼭 맞는 나무를 찾아 전국 방방 곡곡을 돌아다녔다. 나이테가 있는 나무는 그 자체로 시간의 흔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최초로 나무에 지도를 전각한 김정호의 일생을 담기에 적합했다. 안중연은 1992년 이와 비슷한 나무 작업을 했었는데 고산자를 위해 20여 년 전 만들었던 작품들을 꺼내 보았다. 나무에 드로잉을 할 때는 물감이 아닌 인두를 사용한다. 이는 나무가 푼은 긴 시간 속에 형상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 작가소개

안종연 安宗淵 (1952~)

'빛의 작가'로 잘 알려진 안종연은 40년 가까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중견 작가이다. 안종연은 회화를 시작으로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물과 빛, 시간과 우주에 대해 깊이 천착해왔다.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1세대 작가인 안종연의 공공미술작업은 자연친화적으로 주변의 상황과 어우러져 편안한 심상을 제공한다. 공공미술이 가져야 하는 본질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작가는 물과 빛이라는 주제로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상적 풍경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발논리에 끌려 사라져가는 자연, 근원적 생명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켜준다.

그의 공공 조형물은 국립암센터, 삼성생명 종로타워, 교보생명 건물 등에 설치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제주도 섭지코지 휘닉스 아일랜드 건물에 설치한 광풍제월은 거대한 구체를 이루는 스틸 소재가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리오 보타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최근 대명 소노 켈리체 리조트에 조형물을 설치했고 리모델링 예정인 교보빌딩 본사에도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두랄루민, 유리, 돌 등 다양한 매체를 두루 사용하는 안종연은 최근에 LED를 이용해 작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광풍제월(光風霽月)

7m  $\pi$ , 스테인레스 스틸, 피닉스 아일랜드, 제주

## 작가약력

### 안종연 安宗淵 (1952~)

1992 MFA, School of Visual Arts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89-90 School of Visual Arts 학부 과정  
1970-72 부산 동아대학교 문리대 회화과 수학(서양화 전공)

### 개인전

가나화랑(서울), 공간화랑(부산), 박여숙화랑(서울), 분도갤러리(대구), 인화랑(서울) 등 15회

### 그룹 및 초대전

2009 Echo of Eco (2009 양평환경미술제, 한강생태학습장)  
BORDERLESS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현대미술전, YOKOHAMA CREATIVECITY CENTER)  
2008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 시립 미술관)  
Close to you (시안미술관, 경북 영천)  
2007 점으로부터, 점으로(환기미술관, 서울)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청주 국제 공예비엔날레 본전시)  
부산시립미술관 신 소장전(부산)  
2006 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부산)  
한국의 아름다운 색 (토포갤러리, 서울)  
"SORI"전 (Visual Arts Gallery, 뉴욕)  
2005 북경아트페어 (중국 북경)  
2004 상해아트페어 (중국 상해)  
2003 21세기 한국현대미술-기대의 지평전 (선화랑, 서울)  
"물"전 (서울시립미술관)  
2000 스페이스 오딧세이전 (성산미술관)  
1997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청년정신전)  
1996 새로운 회화정신 "평면속의 反평면전" (성곡미술관, 서울)  
1994 Visions' in Between (록펠러센터, 미국 뉴욕)  
1993 Visions' in Between (후쿠야마 미술관, 일본), 이세 Art Foundation (뉴욕)  
1992 논문 발표 전시, Visual Art Gallery (미국 뉴욕)  
1986 프랑스 비평 형상전 (그랑팔레, 프랑스 파리) 등 다수

### 작품 건립 (입체작품)

국립암센터  
삼성생명(종로사옥)  
테크노마트  
교보생명  
휘닉스아일랜드  
마리오보타의 아고라(제주)  
동양파라곤 수공간  
레이크힐스골프장(제주)  
중부시장(서울)  
주택공사(의정부, 안산)  
서재필박사기념 조각공원  
신한리버타운 벽화  
백암비스타골프장 벽화  
농협(동광양)  
잠실대우푸르지오  
파라다이스호텔(제주)  
비엔지스틸(창원)  
롯데마트(영종도)  
홍천 대명 소노펠리체 등 다수

### 작품 소장처 (평면작품)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영남대학교  
제일합섬, 삼성전자, 하나은행, 해태사옥, LG그룹사옥  
송은문화재단, 셋대박물관, 신라호텔, 보광피닉스아일랜드  
은하출판사사옥, 정립건축, 장한기술 사옥, (주)강남사옥(부산)  
비엔지스틸(서울), 인천토지공사 신사옥 등 다수

### 수 상

1982, '83, '84(1,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연 3회 특선  
1985 부산미술대전 우수상  
1975 부산 시전 동상

안종연의 작품세계



광풍제월(光風霽月)

7m  $\pi$ , 스테인레스 스틸, 피닉스 아일랜드, 제주

## 안종연의 작품세계



빛의 소리

스테인레스 스틸 , 유리, 크리스탈 캐스팅, 국립암센터, 2000



안종연의 작품세계



빛의 소리

10m x 6m x 13m / 스테인레스 스틸 , 유리, 크리스털 캐스팅/ (좌) 광주비엔날레(우) 테크노마트 / 1997

## 작가소개.

박범신 朴範信 (1946~)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78년까지 문예지 중심으로 소외된 계층을 다룬 중·단편을 발표하였다. 1979년 장편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눕다』 등을 발표, 베스트셀러가 되어 70~8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1981년 『겨울강 하늬바람』으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빛나는 상상력과 역동적 서사가 어우러진 화려한 문체로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밀도 있게 그려낸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영원한 청년작가'로 불리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1993년 돌연 절필을 선언하고 문학과 삶과 존재의 문제에 대한 겸허한 자기 성찰과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사유의 공간으로 선택한 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멀게 느껴지던 히말라야였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를 여섯 차례 다녀왔으며 최근에는 킬리만자로 트레킹에서 해발 5895미터의 우후루 피크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1996년 유형과도 같은 오랜 고행의 시간 끝에 작품활동을 재개한 후 영혼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작품 세계로 문학적 열정을 새로이 펼쳐보이고 있다.

## 박범신의 작품세계



『주름』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인 주류회사 자금 담당 이사 '김진영'과 그보다 4살 많은 시인이자 화가인 '천예린'이다. 길들여진 삶을 살던 김진영은 천예린과 운명적 만남을 갖는다. 천예린이 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녀를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먼 길을 떠난다. 그의 고행은 아프리카 대륙, 스코틀랜드를 지나 마이칼호에서 천예린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녀가 숨진 뒤 김진영은 깨닫는다. "평생의 모든 삶을 바쳐 소유한 전부를 버리고 나서, 멀고 먼 유랑 끝에 비로소 얻었다고 믿었던 자유, 아니 믿고 싶었던 그 자유의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걸 나는 너무도 또렷이 본 것이었다. 그곳은 그저 어둡고 차가운, 동시에 깊고 부드러운, 꺼진 자궁 같은, 침묵의 집일 뿐이었다." 박범신은 "시간의 주름살이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감금해가는지 진술했고, 그것에 속절없이 훼손당하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다 처형된 한 존재의 역동적 내면 풍경을 가차없이 기록했다"고 한다.

## 시간의 주름 속에 깃든 운명

민족의 시원이라고 알려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일대에서는 삼단계의 영혼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를테면 기단基壇엔 쌀과 같은 육체가 있고, 육체 위엔 호흡이 깃들어 천지간에 길을 내며, 그 길로 흐르다 보면 민들레 홀씨처럼 존재는 빛을 따라 떠돈다. 에젠Ezen은 그 순환의 심지이자 원리이니, 곧 삼라만상이다.

안종연 화백의 이번 전시작들은 존재의 원형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맺어지고, 또 어떻게 소멸과 생성의 과정을 거치는지, 비밀에 가득찬 그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열쇠는 시간이다. 시간의 '주름' 속엔 자기로부터 우주에 이르는 모든 운명이 담겨있다. 불변의 스테인리스에 점묘로 담기는 안종연의 빛들은, 그런 점에서 위태로운 존재의 틈새를 역동적으로 힘있게 파고들어 마침내 순환의 심지인 에젠에 이렇게 닿는다.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라고 말해도 좋을 이번 작업을 지켜보며, 내 상상력의 본원이 한 화가의 손 끝에 의해 날날이 해체되고 의미있게 조합되며, 마침내 전혀 새로운 창조력으로 빛의 지평을 여는 것을 가까이 보았다. 나로서는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안종연 화백 자신이 바로 에젠의 모후였다. 좋은 화가를 만났다는 내 행복감이 전시장을 찾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됐으면 좋겠다.

2010년. 1월  
박 범신〈작가〉

## 시공간을 포착하는 빛의 언어

김준기(미술평론가)

만남은 생산을 매개한다. 이 프로젝트는 문학과 시각예술의 만남에서 나왔다. 인간의 삶 속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시간의 주름을 읽어낸 소설가 박범신과 빛의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 생성과 소멸을 포착해온 시각예술가 안중연이 만났다. 박범신은 '주름'에서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 소멸하는 존재들에게 헌사를 바쳤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숙명을 통해서 나온 '시간의 주름에 관한 기록'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인간 존재에 관한 방대한 저작 속에 담긴 시간성의 문제는 시각예술가 안중연에게 성찰적인 모티프를 선사했다. 이전부터 빛과 공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간성의 문제에 천착해온 안중연은 박범신의 화두를 자신의 시각언어와 결합해 새로운 버전의 안중연 서사를 펼쳤다. 이들의 만남은 새로운 예술생산을 매개했으며, 나아가 탈장르 소통이라는 문화생산을 견인했다.

안중연의 출발은 여전히 빛이다. 그는 빛을 테마로 다양한 변수를 펼치는 과정에서 장대한 문학적 서사를 압축적인 시각언어로 재발견하면서 시간의 주름을 포착하고 있다. 안중연 서사는 기존에 존재했던 소설가와 화가의 만남에서 보여주었던 문학적서사와 시각서사의 단선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심층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문제적이다. 안중연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문학적 서술을 시각화하는 데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박범신 서사의 낱알을 후행하기보다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심급으로 단도직입했다. 그는 문학적서사를 풀어헤친 형상회화에서 미니멀한 평면과 입체, 그리고 영상과 설치에 이르기까지 예술언어 전 영역을 두루 꿰뚫었다.

시간의 켜를 발견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중첩이다. 사진 위에 에폭시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매번 색의 느낌을 달리해 줌으로써 맑고 투명한 계열 색을 얻어내되 그 가운데 안료의 중첩을 시간성의 축적으로 연결한 에폭시 작업들이 있다. 워낙 금속 위주의 강한 재료를 많이 다뤄왔던 터라 액체 성분의 에폭시를 붓고 굳히는 과정을 반복한 이 작업들은 작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험이었다. 그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표현 언어를 체화했다. 그는 재료와 기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가로 유명하다. 탁월한 매체 장악력은 안중연의 최대 미덕이다. 언제나 새로운 상황과 대면해서 도전하고 실험하는 자세가 그의 언어를 고착화한 자기만의 언어가 아닌 유동적인 상호성의 언어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배경으로 쓰이는 프린트의 이미지들이다. 그는 유리 캐스팅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크기와 문양의 유리 입체를 얻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완결된 조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빛을 투사했을 때 그 빛을 굴절해서 환상적인 빛 놀이를 펼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안중연은 이 '빛놀이'를 변형, 확장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 이른바 원 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 개념이다. 유리 캐스팅은 그 색과 문양으로 인해 빛을 조절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그것으로부터 나온 빛은 공간을 투영하는 판타지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다시 사진과 영상으로 전환하여 제2, 제3의 작업으로 연결시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작업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빛나게 하는 현란한 변주곡이다.

블랙 미러를 쏘아서 빛의 형상을 담은 〈빛의 에젠〉 연작은 맑고 깊은 안중연식 평면이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의 영성을 담고 있는 에젠(Ezen) 개념을 끌어들이는 제목으로 빛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한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의 존재를 통해서 영매로서의 예술(작품)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빛의 여백〉 연작은 컬러 스테인리스스틸 판재 위에 전동 드릴로 쏘아서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다시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완성하는 안중연 특유의 기법으로, 물결의 파동이나 풍경 등을 통해서 빛의 확산을 시각화 한 작품들이다. 안중연 자신과 이 프로젝트의 동반자인 박범신 두 인물을 새긴 초상 작업과 더불어 이들 블랙 미러와 컬러 스테인리스 작품들은 근 몇 년간 금속 패널 위에 그림을 그려온 안중연의 독특한 시각 언어들이 얼마나 성찰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회화의 일루전이 불리일으키는 판타지가 매력적인 작품도 있다. 〈바이칼의 에젠〉은 현실과 이데아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모습을 담은 역작이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액체 성분의 에폭시를 부어 고착화 시키는 과정에서 얼어붙은 이상향의 도시를 펼쳐 보이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같은 개념의 페인팅 〈폭설〉과 비교해보면 표면 처리의 변주에 따라 그의 그림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여느 작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명시적으로 소설의 서사를 끌어들이어 상황과 장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캔버스 페인팅에 반짝이는 보석들을 붙이고 에폭시를 부어 만든 이 작품들은 페인팅이 여전히 강력한 시각언어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다.

가장 미니멀한 방식으로 접근한 작품으로는 〈에폭시 드리핑 페인팅(epoxy dripping painting)〉을 꼽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평면 위에다가 에폭시를 붓고 그 위에 색을 얹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간의 커를 쌓는 수행성을 동반한다. 커커이 쌓이는 시간의 주름을 안중연은 물질의 중첩으로 은유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가장 심플하게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원의 형상이다. 문학서사와 시각서사를 연동시키는 데 있어 최소주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그 심금을 가장 깔끔하게 담아낸 작품이 〈새날들의 시작〉 연작이다. 이 작품들은 여러 겹으로 중첩된 에폭시 층에 맑은 안료를 반복해서 펼친 결과물이다. 경계선이 뚜렷한 원형을 이루는가 하면 진한 것에서 옅은 것으로 번져가는 형상, 동그라미의 선을 이루는가 하면 그 선을 깨트리거나 생명체의 원형질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평면을 넘어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각성이 가져다주는 지각의 깊이를 실감하곤 한다. 녹슨 스틸 판재를 엮어서 만든 〈빈 중심〉은 평면에서 입체로 코드를 전환함으로써 공간을 생성하고 그 속에서 시간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예술적 직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는 각각 다른 크기의 판재 원들을 겹쳐서 입방체 타원을 만들어냈다. 인간 형상을 넣은 판재들이 커커이 겹쳐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들 사이에서 영원의 세계로 이어지는 시간성의 사유를 포착한 작품이다. 녹슨 쇠의 물성도 그러하거나 판재의 중첩으로 입체를 만들고 그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이 작품이야말로 안중연 언어의 특성을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페인팅이나 드리핑 기법에 의한 평면 작품들과 더불어 철재, 목재, 사진, 영상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는 안중연의 예술은 조명으로까지 이어진다. 안중연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리 공예술을 첨단 조명기술과 연동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유리 캐스팅 안에 LED 조명을 넣고 그것을 거울 앞에 펼쳐서 볼록이나 오목의 원형으로 확장한다. 안중연의 조명은 빛의 에너지로 시각적 판타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공간의 확장을 끌어내고 시간의 주름이라는 일관된 주제로까지 연결해내는 통섭의 예술을 잘 보여준다. 입체와 영상을 결합한 〈만화경〉은 에폭시 페인팅 연작에서 얻은 이미지들을 다양한 화면으로 변주한 애니메이션을 거울 설치와 조명과 함께 연동함으로써, 커커이 확장하는 공간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시간과 공간, 즉 만다라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한다.

빛을 이용한 안종연의 공간설치는 우주의 공간 속에서 시간성의 원형을 체험하게 하는 방대한 스케일이 시각 서사를 구축한다. 안종연의 시각 서사가 마침내 웅장한 장면과 상황을 전개하는 곳이 바로 이 빛 공간이다. <빛의 예첸>은 유리 캐스팅으로 만든 다양한 구체들을 통과한 빛들이 펼치는 판타지의 세계이다. 그는 이 빛 공간에 이르러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는 시간과 공간, 생성과 소멸의 문제가 하나의 화두로 집약하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것은 그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빛의 세계이다. 그에게 있어서 빛은 예술언어의 출발이자 결말을 이룬다. 그 빛은 삶을 성찰하는 예술가의 영성과 직결한다. 영매로서의 예술가 주체를 향한 안종연의 걸음이 오롯이 담긴 것이다.

안종연의 세계는 예술과 기술, 물질과 비물질, 조형과 개념, 시각예술과 문학 등 서로 이웃하면서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범주들에 두루 걸쳐있다. 그는 예술 영역에 발 딛고 서서 그 범주를 확장하는 예술인일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영역을 이어주는 메신저이다. 그는 예술과 그 바깥을 두루 꿰뚫는 인터아트(Inter-art)의 영역으로 자신의 존재양식과 활동방식을 무한히 확장한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과 지금 걷고 있는 길, 그리고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 모두에 있어서 안과 밖을 넘나드는 탈경계의 상호성은 그의 삶과 예술 전체의 핵심을 이룬다. 그것은 예술가의 지위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업하는 사유의 실천가로 재정립한다. 이런 맥락에서 안종연은 탈근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을 열망하며 예술체제의 전환을 실천하는 통합과 통섭의 예술가이다.

## ‘주름’의 시간으로부터 결별

그해 봄꽃들은 유난히 빨리 졌고 여름엔 자주 폭우가 쏟아졌으며 가을은 속절없이 침몰했다. 내가 ‘신생의 폭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작품의 초고를 쓰던 세기말의 풍경이 그랬다는 것이다. 이듬해 책을 만들면서, ‘문학동네’ 강태형 사장이 제목을 ‘침묵의 집’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 무렵 이미 내 가슴엔 시간의 주름살이 더께로 얹히면서 강력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제목을 ‘침묵의 집’으로 바꾸고 뒷부분을 상당부분 손질하여 ‘문학동네’에서 두 권으로 간행했다. 2천 6백여 매나 되는 긴 소설이었다. 지나치게 말이 많았거나 참을성이 없이 비명을 질러댄 것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완간된 책을 받아든 날은 너무 가슴 속 동통이 심해 우황청심환을 씹어 먹고 그것도 모자라 깡 소주를 병째 마셨다. 뭐랄까, 앞으로도 오래 ‘침묵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그 작품으로부터 내가 떠날 수 없을 것 같은 불온한 예감이 드는 것이었다. 참지 못하고 써버리고 만 것에 대한 자탄과 회한 때문에 한번 책을 내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 내 습성과 견주어 볼 때 아주 드물고 특별한 사적 감정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애써 ‘침묵의 집’을 잘 보이지 않는 뒷줄 책장에 처박아 놓고 잊으려고 노력했다. 신세기의 시간은 가파르게 다가와 횡포하게 흘렀다. 눈을 감으면 자주 천지사방에서 꽃들이 지는 것이었고, 멀고 먼 설산의 바늘귀 같은 협곡 사이로 어깨를 한껏 구부린 내가 걷는 꿈을 매일같이 꾸고 살았다. 맹목적인 분노와 비탄과 자학이 때때로 나를 괴롭혔다. 나는 훈련받은 사회적자아를 앞세워 그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감정의 단층들과 피어리개 투쟁했다. 정 건딜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먼 여행을 떠났으며 유랑의 길 끝에서 ‘텅 빈 중심’과 만나 혼자 울었다. 처음 ‘침묵의 집’을 간행했을 때 가졌던 불온한 예감이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이다. 멀고 먼 산야를 혼자 헤매다가 한 평도 안 되는 남루한 방에 몸을 누였을 때, 화급하게 우황청심환을 까먹거나 술에 취해 변기 속으로 코를 박고서 토하고 났을 때, 깊은 밤불도 켜지 않은 서가에서 혼자 서성거리며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를 북악의 정수리를 내다보고 있을 때, 뒷머리 털을 주뺨 세우려는 듯이 등 뒤로부터 나를 날카롭게 잡아채는 것, 움찔해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존재함으로써 나의 오십대를 잔인하게 가두로 있는 것이 바로 ‘침묵의 집’이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버리고자 했던 감각하면서도 예리하게 푸르른 ‘침묵의 집’으로 귀환했다. 7년만의 귀환이었다. 백기 들고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의 집’에 담겨진 그것들로부터 놓여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나도 환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해주었다. 2천 6백여 매 소설을 1천 5백여 매 정도로 대폭 줄였다. 1천매 이상 깎아낸 소설이니 제목을 바꿔도 좋은 권리를 당연히 내가 갖게 됐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시간의 주름’이나 ‘주름’이나를 놓고 내 뒀던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출판사 편집진은 ‘주름’이 제목에 들어가면 책이 잘 팔리지 않을 거라는 고마운 충고를 해주었다. 나는 주술적으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존재론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듯이 생각했다.

이 소설 ‘주름’을 읽는 당신에게도 당연히 단독자로서의 당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순살이나 된 내 주인공의 치명적인 유랑과 반역적 모랄리티, 그리고 피고름을 기꺼이 먹는 끔찍한 성적(性的)자멸의 상세묘사에 대해 혐오와 불화살의 비난을 아끼지 않더라도, 그것조차 당신의 권리이다. 분노해서 소리쳐 욕을 하거나 더러워 욕지기를 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공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족으로 붙여 충고하거니와, ‘주름’을 단순히 부도덕하고 더러운 러브스토리만 읽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시간의 주름살이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감금해 가는지 진술했고, 그것에 속절없이 훼손당하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다 처형된 한 존재의 역동적인 내면풍경을 가차 없이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단두대를 준비해두고 있다. 당신과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 칼날에 목을 들이대기 위해 생을 진행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전광석화처럼 뒤돌아보자. 혹시 우리가 쓰고만 패드처럼 버렸던 ‘옛 꿈’들이 나를 위망하며 서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바쁘게 달려가는 내 등 뒤에 우두커니 서서 따라오는 그 자, 옛 꿈의 유령들. ‘옛 꿈’들과 함께 갈 때, 아마도 다가오는 실존의 시간들이 그나마 완화될 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시간을 돌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는가. 생이.....환하던가.

‘주름’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출간할 수 있게 허락해준 넉넉한 강태형 사장과 책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해준 김민정 시인, 젊고 사랑스런 백다훈군, 미술평론가로서 기꺼이 해설을 맡아준 이진숙씨와 예리한 단필로 작품을 분석해준 김형중씨, 그리고 랜덤하우스중앙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전한다. 책을 내면서 나는 이제 이 ‘주름’의 잔인한 시간으로부터 정말 떠나려고 한다. 그게 최근의 내 소망이다. 모두들 고맙다.

## 사단법인 문학사랑

2002년 3월 창립한 사단법인 문학사랑은 문학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실천하여 문학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윤택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문학과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 ‘문학과 예술의 만남’ 주요 전시

2007 신경림 · 송수남 그림전  
도종환 · 송필용 그림전

2006 문학그림전  
참여작가: 윤후명 · 김원숙 · 임만혁, 송기원 · 이인, 오세영 · 오세영, 안도현 · 박남철, 김용택 · 선병훈, 김남조 · 윤정선

2005 그림, 시, 그리고 사랑  
참여작가: 정호승 · 박항률

2004 그림, 소설을 읽다  
참여작가: 김주영·이두식, 박완서 · 박항률, 황석영 · 민정기, 이청준 · 김선두, 최인호 · 김점선

##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은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교보생명 보험주식회사를 일으킨 대산 신용호선생의 뜻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대산문화재단은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익문화사업을 통하여 문화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대신문학상, 대신창작기금 등을 통해 창작 문학계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 있는 문학인들을 발굴하며, 다양한 국내외 학술 행사와 포럼을 통해 문학을 통한 교류를 이끌어낸다. 또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국민 정신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범신은 소설 『고산자』로 2009년 17회 대신문학상을 수상했다.